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4. 2. 7.(수) 11:00,
(지면) 2024. 2. 8.(목) 조간

배포 2024. 2. 7.(수) 06:00

활력 넘치는 청년들이 미래 어촌 이끌어 간다

- 올해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전년보다 11% 많은 251명 선정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2024년 청년어촌정착 지원 대상자로 전년도(227명)에 비해 약 11% 증가한 25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.

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창업과 어촌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,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. 이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,135명*의 청년 어업인이 지원을 받은 바 있다.

* 지원 대상(명) : ('18) 100 → ('19) 169 → ('20) 208 → ('21) 206 → ('22) 225 → ('23) 227 → ('24) 251

해양수산부는 지원 대상자 모집을 위해 지난해 12월경 지자체별 모집공고를 진행하였으며,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거쳐 최종 251명을 선정하였다. 또한, 개인사유 등으로 신청자가 중도 취소한 시·군·구에서는 추가 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며,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시·군·구에 문의하여 모집 일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미래 어촌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활력 넘치는 청년들의 어촌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”라며, “이를 위해, 어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	책임자	과 장	김정화 (044-200-5650)
		담당자	사무관	김건호 (044-200-5662)

참고

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개요

□ 사업내용

- (목적)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착 자금을 지원,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촌 고령화 문제 해소
- (지원규모) 2,527백만원
- (지원대상) 수산업(어업·양식업, 유통·가공업) 경력 3년 이하 만 40세 미만
 - * 어업 및 양식업 창업 예정자 포함
- (지원내용) 1인당 최대 월 110만원 최장 3년 지원
 - * (어업경영 기준) 1년차 110만원/월, 2년차 100만원/월, 3년차 90만원/월
 - ** (사용용도) 어업경영비·가계자금(어업분야 창업, 어촌정착에 필요한 비용 지원)
- (지원조건 / 시행주체) 국비 70%(농특), 지방비 30% / 지자체

<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 선정 현황 >

(단위 : 명)

구분	계	부산	인천	울산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'18년	100	-	1	-	2	3	-	17	8	54	2	10	3
'19년	169	4	3	-	3	7	1	28	14	88	7	12	2
'20년	208	5	6	2	4	8	-	27	17	100	12	25	2
'21년	206	4	6	1	3	8	-	21	15	105	12	30	1
'22년	225	3	1	2	2	19	-	24	18	106	11	37	2
'23년	227	2	8	-	3	23	-	25	16	89	16	40	5
'24년	251	3	14		3	27	1	22	15	110	20	36	-

□ 사업 예산 주요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4년	증감현황	
							금액	비율
604	1,474	1,474	1,560	1,712	1,926	2,527	601	31.2%